투영-은혜의 바다, Oil on Canvas, 60.6*60.6cm, 2008.

정해숙, 영적인 보화를 담아내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정해숙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총 8회의 개인전과 150여 회의 크고 작은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기독교 미술대전 심사위원, 그리고 사랑의 교회 미술인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하늘의 별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태초부터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들은 자기 궤도를 일탈하지 않고 묵묵히 정해진 행로를 걷는다. 무수한 별이 질서를 지켜왔기에 오늘과 같은 우주가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별들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

정해숙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네모와 세모, 막대와 색 띠로 이루어진 수많은 면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기하학적이고 옵티컬한 구조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도형들이 다채롭기만 하다. 미학자들이 말한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함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이웃해 있는 면들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인접 면을 도와주고 전체의 통일성에 이바지한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큰 조각을 이루고 그렇게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해간다. 모든 부분은 그림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해숙의 작품은 이처럼 '질서의 미'를 새삼 일깨워준다.

맑고 청아한 공간

그의 회화는 양식적으로는 서정적 추상과 대비되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해숙의 작품은 냉랭하거나 무표정하지 않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기하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한 시각적 효과 자체가 목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하학은 '의미'에 자리를 내주며 거기에 봉사한다는 데에 작품의 특색이 있다.

그가 실어내는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화면의 도상을 점검해보기로 하자. 색깔은 경쾌하고 서로 사이좋게 어울리는가 하면 각종 이미지도 이에 호응하여 보조를 맞춘다. 푸르른 바다, 강렬한 빛과 그 빛이 물위로 반사될 때와 같은 눈부심, 시원스레 뻗은 수평선과 그 위를 훨훨 나는 새가 시야에 들어온다. 색깔은 푸르고 리듬은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화스럽다.

그의 작품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드넓은 창공을 연상시키는데 이런 이미지의 탄생은 그의 해외 체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해숙은 수년간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한 적이 있다. 거기서 접한 남태평양의 파도와 반짝이는 모래사장, 새파란 하늘이 그의 작업에 영감을 주었다. 그의 그림을 밝게 물들이는 코발트 블루, 터키, 에메랄드, 바이올렛 색상들은 열대의 자연을 연상시키며 청정지역의 아름다움, 생명의 호흡을 읽게 해준다. 안구를 정화해주는 아름다운 풍광이 아닐 수 없다. 순도 높은 색상과 빛이 부서질 때의 찬란함을 자주 구사하는 것은 이런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일찍이 평론가 이일은 작가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화면의 구성 요소로서의 대비적 관계,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극소와 극대, 부분과 전체와의 그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는 서로 겹치고 또 스스로 증폭되어 가면서 일종의 다중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평면적이자 동시에 이중 삼중의 깊이 있는 공간이며 정신적 투영으로서의 투명한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엄밀하고도 정연한 내재적 리듬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이다."(1992)

이 글은 그의 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큰 틀에서 극소와 극대, 부분과 전체의 대비는 여전하며, 두 요인이 엇물리고 병행하면서 화면을 촘촘히 직조해간다. 이성에 의지하면 차가워지고 감성에 의지하면 과할 수 있는데 무리수를 두지 않고 화면을 차분히 경영해가는 것이 흥미롭다. 그런데 그의 회화는 통상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다르게 강한 암시성을 띠고 있다.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가 하면 갈매기가 새파란 창공을 가르며 비상한다.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장막이 열린 사이로 환한 빛줄기가 불타는 운석처럼 지상으로 쏜살같이 내리꽂힌다. 영롱한 색깔이 말레이시아의 해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1. 투영-열린 길, Oil on Canvas, 130.3*130.3cm, 2001.
2. 투영-기도, Oil on Canvas, 112*112cm, 2005.
3. 투영-영원의 문, Oil on Canvas, 91*91cm, 2005.

라면 이 빛줄기는 바로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순히 기계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추상작품이 아니라 천상을 향한 마음이 결합한 공간이요, 영혼의 소망을 함축한 공간이다.

빛의 감응

그의 작품에서 도드라진 오묘한 빛의 감응에 대해선 약간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빛이 작품의 주요 인자(因子)인 동시에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빛을 매개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는 얘기이다.

〈투영-사랑의 하나님〉, 〈투영-꿈꾸는 섬〉, 〈투영-새벽기도〉, 〈투영-좁은 문〉, 〈투영-은혜의 강〉, 〈투영-생명의 강〉, 〈투영-사랑의 예수님〉, 〈투영-부활〉 등은 다이아몬드처럼 다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자가, 창문,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도 흰빛이 나온다. 이것은 취리히의 명소가 된, 샤갈이 제작한 프라우 뮌스터(Frau Muenster)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떠올리게 한다.

〈투영-열린 길〉은 중앙의 네모에서 빛줄기가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마치 프리즘을 통해 여러 빛이 나오듯이 네모의 각 변을 따라 길이 새겨지고 그 길을 따라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다. 기하학에 또 다른 기하학이 겹쳐지면서 빛은 더욱 밝아지고 명료해진다. 색으로 빛을 만들고 그 빛이 정신으로 변하는 효과를 연출하는 셈이다. 예술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영혼의 깊이를 바라보는 눈길만 남게 된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 같다.

〈투영-은혜의 바다〉는 상하 두 부분으로 화면이 나뉘어 있다. 위쪽에는 새가 날아가고 아래쪽에는 수없이 많은 네모 조각들 사이로 영롱한 빛을 쏟아내고 있다. 얼른 보면 평범한 그림 같지만, 이 그림의 포인트는 좌측 상단의 삼각형에 있다. 명도를 달리하는 삼각형은 마치 장막을 거두고 강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게다가 먼 곳에서 날아온 새를 기용하여 신비로움을 고조시키고 있다. 마치 천상의 새 같은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상은 오색찬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들을 반겨주고 있다.

〈투영-기도〉는 장막 사이로 빛줄기가 쏟아지며 중앙에 계단이 놓인 그림이다. 중앙에 수직으로 빛이 드리워지고 다시 그 주위를 큰 원이 에워싸고 있는데 여기서도 빛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에 생명을 주는 것은 빛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빛은 더욱 환해진다.

이처럼 빛은 정해숙의 거의 모든 작품에 흐르고 있다. 그 빛은 인상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물리적인 광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빛이요 초월적인 빛이다. 이 영적인 빛줄기가 없었더라면 인간의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J.Edwards)는 영적인 지각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비길 데 없는 '고상한 기쁨'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참된 선과 거룩의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눈멀고 귀먹고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주 환기하고 있다.

정해숙이 그리는 빛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가 나타내는 빛은 '영적 광채'요, 이 광채는 신적 임재를 경험할 때만 나타나는 심령의 기쁨을 표상한 것이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시를 통해 다가온 빛이다. 우리가 보는 빛은 어쩌면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을 바울로 변모시킨 한없는 은총의 빛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렇게 '마음의 수조(水槽)'에 채워져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 실어낸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신비가 가져다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벧전 1:8)을 표상하고 있는 셈이며, 주님을 향한 신앙의 묘목이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뿌리가 점점 자라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예술의 역사에서 신앙은 늘 있었지만,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늘 감추어져 왔다. 그 진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작가가 가장 빛나고 영화로운 세계를 자기 예술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모습은 마치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성경 속의 농부를 연상시킨다.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역력히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요컨대 그의 그림은 마음의 갱도에 자리 잡은 '영적인 보화'를 조형이란 곡괭이로 채굴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멀고도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렸기에 더욱 값지지 않을까.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빌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